

역전광장의 물리적 환경 분석을 통한 Identity 연구

A Study on the Physical Environmental of Station Squares

이상락, 김세천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Sang-Rok Lee, Sei-Cheon Kim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Keyword : Squares, Identity, Physical Environmental

1. 서론

현대 도시의 삶속에서 역(驛)이 가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로 역이 가지는 위치의 기능성일 것이다. 즉 대부분의 역은 그 도시의 중심적 위치에 존재한다. 예전에 거리 외곽에 있었던 것도 이제는 확실히 도시속으로 들어와 버렸다.

둘째로, 다수의 승객이 매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역의경우 1일 역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는 2만 명에 이른다.

셋째로, 역으로의 액세스(access)가 완성되어 있는 것이다. 철도 뿐만 아니라, 버스나 택시 등까지 이미 사람이 모이는 수단이라고 있는 것이다.

넷째는 이만큼 정돈된 조건을 가진 지점에 개발될 스페이스, 여지가 아직 보이는 것이다. 역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설을 재검토하고 집중화하는 것만으로, 역이 가지는 가능성은 다분히 발견된다.

다섯째는 철도 자체가 훌륭한 잠재성을 갖고 있는 점이다. 앞으로, 철도는 도시나 도시간의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는 변함 없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역이 도시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할만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철도와 도시의 접점이 역이라 한다면, 그 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역에 있어서 도시나 국가차원의 특정행사를 위한 광장은 도시의 중심부 또는 교통의 결승점에 위치하고 국가 재난시에는 대피장소로도 활용되며 평소에는 시장, 집회의 장소, 운동광장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도시의 일반적인 광장을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다가로(多街路)에 의한 광장의 형태가 많고 기능별로는 주로 교차로 광장과 같은 교통위주의 광장이 많아 시민들의 이용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지 교통광장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역전 광장들의 기능을 통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내의 시민 광장으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현재 설치되어있는 시설물들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서 역전광장의 가능성을 파악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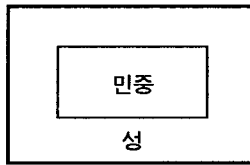
2. 역전광장의 물리적 환경 고찰

2-1.역전광장의 의미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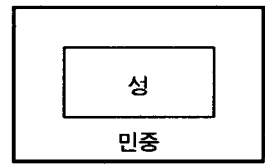
1) 의미

서양의 건축은 전통적으로 석조나 벽돌조로서 건물 안팎이 구획되고 내부와 외부라는 별개의 독립적 공간을 이룬다. 외관도 정면성을 갖추고 좌우대칭의 밖에서 볼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두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내부와 외부공간에 일체화가 될 수 있는 목조 구조의 개구부(開口部)가 있어 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볼 때의 정원대상은 좀더 사적이고 아늑한

개인의 정원으로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외관이 반드시 화려하지 않았고, 따라서 정면성 보다는 비대칭적 조화로써 자연질서에 순응적이었다. 이는 물론 우리나라 기후 풍토 및 문화적 배경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안에서 바라보는 우위성 때문에 대상으로 보이는 건물의관에는 전혀 무관했으며 이로써 외적질서의 정비 등 서구적인 도시의 발상은 나올 수 없었던 것이다.



유럽도시의 다이어그램



동양 성밖의 다이어그램

2)특성

디자인 요소들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조합 될 때 형과 마관 가지로 그 자체나 주변공간과도 관계가 있다. 이밖에 공간에 관련된 건축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는 둘레, 높이, 폭, 깊이 및, 피칭 등이 있다. 단순한 공간이라도 그것이 관계되어 정리 되어있지 않으면 흥미보다는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하물며 독창적 환경의 도시내 역전광장이란 지형을 평가하기는 단순하지가 않다. 지형의 형태는 미기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도시환경 전체에 어느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친다. 비록 지형과 식생에 의한 영향권의 범위는 협소하기는 하지만 도시의 기후 조절을 위해서는 그러한 자연적 요소의 도입과 질적 현상이 도시내의 오픈스페이스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다.

2-2 역전광장의 효과적 기능의 가능성

1)공간의 한정

공간지각에 미치는 세가지 변수가 혼히 거론된다.

①공간의 바닥면

②위요하는 측면의 경사정도

③위요하는 측면의 경사정도 수평/외형선 등으로 세변수는 모두 공간을 위요하기 위해 서로 동시에 관련되어 있다.

2)시아 조절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라 불리는 도시광장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디자인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①기능 및 용도

②공간적 구성-공간의 넓이와 깊이, 주위건물들의 높이

③연결부(connections) 및 연속부(sequence)

④크기와 분위기에 대한 인간적인 요인

⑤디테일로서의 특징물 등이다

이때의 공간의 한정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가깝고 연결되는 것은 조망의 개념이다. 필요에 따른 수직면 또는 경사방향, 바닥의 높이변화 등에 따라 얼마나 어떻게 보이는가에 영향을 주며 한 대상에 대한 연속적인 조망내지 점진적 인식 등을 창출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를 완전히 가려주는 역할을 한다.

3)경관 효과

지형은 다른 요소들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으며 옥외환경이라는 면 때문에 경관에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식물, 포장, 물, 기타재료와 함께 건물과 같은 물리적인 경관요소의 기능이나 우세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경관부분에서의 기반 구조를 형성하여 환경의 전반적인 질서와 형태를 좌우하게 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빛과 그림자의 뚜렷한 패턴으로 도시내의 조각적 요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형적 광장을 형상화시킬 때에는 다음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주변전체의 속성과 조화되어야 한다.

②강하고 명쾌한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③경우에 따라서 건축의 한 경관속으로 연장 시킨다든지 관련되는 지반요소로서 건축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이는 다시 말하여 변화있고 탄력성있는 공간의 창출을 시도하되 이러한 변화의 창조도 전체로서 통일된 하나의 질서를 내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이다.

3. 사례연구

3-1. 대상지의 선정

연구대상지 선정은 전라북도에 있는 역전광장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나 그중 김제역, 부안역은 역은 존재하나 역전광장의 규모 및 기타 부대시설은 매우 미비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시하였으며 그 대상지는 다음과 같다.

1)전주역 광장

2)익산역 광장

3)남원역 광장

4)군산역 광장

5)정읍역 광장

3-2. 광장의 공간적 형태와 특성

1) 광장의 입지 및 패턴

대부분의 광장들이 주변의 도로에 접하여 있어 도로로서 통로적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의 街角에 위치하여 L자형의 입지가 3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의 바깥모퉁이로 인해 광장의 전체를 파악할 수 없게 되어있다.

2)광장의 형상

우선 지형의 단면에 고저차를 보이고 있는 곳은 1곳이 나타나고 있다. 지형은 평탄형이나 버스정류장과 인접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교통의 접근성도 광장의 입지와 형상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게된다. 평면적인 부지 형상은 건축물의 배치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장방향인 2곳으로서 통과 도로의 기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광장의 영역이 주로 녹지나 담 또는 지형 요소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건축물과 인접도로로 인한 한정에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3)광장의 접근성

외부에서의 교통접근성은 극히 양호한 상태이다. 또한 광장 중앙에서 건물입구까지의 거리가 50m이내인 장소는 대상지 전부이며 익산역광장을 제외한 전 대상이 같은 바닥면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같은 면일 경우 입구까지의 방향도 전 대상이 직선상에 위치하여 인접 건물에서의 보행접근도 매우 양호한 상태로 전반적인 광장의 접근은 용이하다 하겠다.

4)광장의 접도

인접도로 또는 도로로부터의 입구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

로에 접한 어느곳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접근성은 편리하나 반대급부로 광장자체의 위요감이나 소음과 같은 제반 공해요소로 부터의 문제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광장의 이용

광장의 이용자들은 주로 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대부분이며 이용계층은 대상 계층이 끌고루 이용하고 있으나 도심내의 시민광장 계획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이용 목적은 주로 대기시간의 휴식과 만남이며 인접시설의 이용등으로 광장에서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액티비티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6)광장의 성격

공간의 성격은 광장을 에워싸거나 인접되어 있는 주변 건물 저층부의 용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게 된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광장의 이용목적과 행태도 변하게 됨을 예측케 한다.

본 연구대상지는 주로 도심에 위치하여서 주변 건물의 용도가 주로 상업·업무 시설이었으나 광장마다의 성격이 뚜렷하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으며 이용목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휴식, 통과와 장소로 소극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대상 광장의 공간적 형태와 특성은 가로변에 위치하여 장방향으로 구성되었으며 접근성은 좋으나 이용목적이나 공장의 성격은 매우 단조롭고 소극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4. 결론

연구대상지 광장은 건물의 배치 및 도시의 규모로 보아 이상적인 규모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며 도로에 접한 범주로서 시민광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광장은 접근, 교통이용에는 매우 편리하고, 긍정적 이었으나 그 위치나 규모는 공간의 폐쇄감과 미기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고려가 설계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심광장 주변의 미기후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 분석을 통한 연구가 병행되어 실질적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광장이 우리나라 도시에 도입된지가 일천하여 채광과 통풍, 교통문제의 해결 등 기능적인 문제에만 비중을 두어 왔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형적측면에서 건축과의 관계에 따른 전체공간에서의 위치와 규모 광장내에서 크기의 비례감 등은 미기후의 영향범위와 함께 적극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장의 편익시설은 비교적 양적측면에서는 충분하나 질적측면에서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제는 시설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주변공간과의 조화성, 그 광장만의 특이성에 좀더 관심을 갖고 진행함으로써 어느 광장이나 획일적이며 특징이 없는 도시내 광장으로 재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것이다.